

아듀! 2004 디지털콘텐츠 10대 뉴스

세밀이면 으레 신문과 방송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다. 무엇이든 정리하는 것이 숙명인 언론은 한해를 가장 쉽게 요약해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한다. 상투적이고 식상한 듯 하지만 독자들의 귀와 눈이 되는 주요한 기사이다. 올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는 10대 뉴스로 한해를 정리해 봤다.

글 / 권경희 기자

시상자 선정위원회	2004년 AHC스 분야	2004년 AHC스 분야
대상	방송물 제작	새해의 희망
1	50만개 이상	2004년 1,000만개 이상
2	10만개 이상	2004년 500만개 이상
3	5만개 이상	2004년 250만개 이상
4	2만개 이상	2004년 100만개 이상
5	1만개 이상	2004년 50만개 이상
6	5천개 이상	2004년 25만개 이상
7	2천개 이상	2004년 10만개 이상
8	1천개 이상	2004년 5만개 이상
9	500개 이상	2004년 2만개 이상
10	250개 이상	2004년 1만개 이상
11	100개 이상	2004년 5천개 이상
12	50개 이상	2004년 2천개 이상
13	25개 이상	2004년 1천개 이상
14	10개 이상	2004년 500개 이상
15	5개 이상	2004년 250개 이상
16	2개 이상	2004년 100개 이상
17	1개 이상	2004년 50개 이상
18	0개 이상	2004년 25개 이상
19	0개 이상	2004년 10개 이상
20	0개 이상	2004년 5개 이상



1 | 참여정부 'IT 839 전략' 발표

9대 신기술·제품

프로젝트	올해 추진계획	중장기 계획(2007년)
차세대 이동통신	시제품 개발	초고속(4세대)이동서비스
디지털 TV	송수신 단말기 개발	통합융합서비스 서버/단말개발
홈네트워크	유무선 통합 홈서버 개발	통신·방송·게임 통합 홈 서버 개발
IT Soc	웹 국산화	세계 3대 선진국 도약
차세대 PC	손목시계형 첫선	입는 컴퓨터 상용화
임베디드 S/W	100가지 국산제품에 탑재	국산화를 50% 달성
디지털콘텐츠	첨단 게임엔진 개발	세계 3대 공개 S/W 생산국 달성
텔레매틱스	기술개발 검증	차량내 모바일 오피스 구현
지능형 로봇	주인 알아보는 기술개발	세계 지능형 로봇 시장 20%점유

8대 서비스

프로젝트	올해 추진계획	중장기 계획
Wibro	사업자선정방안 확정	2006년 서비스 본격개시
위성 및 지상파 DMB	방송국 허가	서비스 확대
홈네트워크	50만가구 보급	2007년 1,000만가구 보급
RFID	주파수 분배	2007년 세계시장 5% 점유
W-CDMA	업체에 보조금 허용	2006년 전국망 구축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논란 종식	내년 전국망 구축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	2007년 이용자 1,000만명
인터넷 전화	요금제도 정형	2006년 이용자 400만명

3대 인프라

프로젝트	올해 추진계획	중장기 계획
광대역 통합망	연구개발망구축	2010년 2,000만 가입자확보
USN	시범사업추진	2010년 실생활 본격활용
IPv6	시범망확대	2010년 All IPv6 전환

'IT 839 전략'을 통해 참여정부 임기 내에 지능기반사회로 진입하겠다는 IT미래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9일 IT를 통한 미래국가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IT신성장동력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IT 839 전략 속에 중소·벤처기업들이 10~15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물음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며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 장관은 "현대인터넷 등 8대 신규 서비스를, 3대 인프라(광대역통합망 등)를 기반으로 도입해, 9대 신성장동력(차세대 이동통신 등)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IT 839 전략을 요약하고 "과거에는 우리 경제가 D램, CDMA 등 단일품목에 의존해 성장해 왔으나 2만달러시대에는 IT 839와 같은 복합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앞으로 산업단지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거시·미시 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 | MP3폰 분쟁 이통사 해법제시로 '타협'

휴대폰에서 MP3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지난 6개월간 사용자들과 음원 권리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해왔다.

서비스 당사자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은 음원 권리자들의 주장대로 사적파일 재생을 제약한 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이 적용된 유료파일 재생만 허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를 해제했다.

반면 LG텔레콤은 사용자 주장대로 사적파일의 무제한 재생을 허용했다가 음원권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뒤로 현재는 한시적 무료허용 이후 유료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은 사용자, 권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마련해 최근 속속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해법도 그간의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각각 '멜론'과 '뮤직온'이라는 음악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유무선 음



악서비스인 멜론을 통해 사용자가 매달 5,000원을 내면 57만 곡 이상의 MP3 음악파일을 휴대폰과 PC, MP3 기기 등에서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에 상관없이 입맛대로 쓰도록 했다. LG텔레콤은 뮤직온을 내년 6월까지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내년 7월부터는 유료화할 계획이며, 이때 사적파일의 재생도 막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3 | 대작 온라인게임들의 잇단 출시



올 겨울 온라인게임 시장에 '블록버스터'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산 대작게임인 'RF온라인'이 상용서비스에 들어갔고, 올해 내내 게임팬들의 애를 태웠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도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RF온라인은 CCR이 '포트리스2'의 명성을 잇기 위해 지난

5년간 80억원을 투자해 만든 다중접속롤플레이게임(MMORPG)이다. 이 게임은 중세 환타지에 바탕한 여느 MMORPG 게임과 달리 미지의 외계 행성을 배경으로 세 종족의 세력다툼이라는 SF적 내용을 그렸다. 해외시장에서도 예상 밖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500만달러, 대만 300만달러, 일본 150만달러 등 총 1,000만달러가 넘는 수출 기록을 세웠다.

올해 최고의 온라인게임 화제작으로 '스타크래프트'의 제작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와우도 빼놓을 수 없다. 블리자드의 히트게임 '워크래프트'의 내용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다양한 탐험임무(퀘스트)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게임은 지난달 12일 오픈베타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서버가 다 운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려드는 대단한 성황을 이뤘고, 첫날 12대로 시작된 게임서버는 52대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길드워'는 전세계 동시 프리뷰(preview) 테스트에 나섰고 나코인터랙티브의 '라스트카오스', NHN의 '아크로드' 등이 오픈베타 서비스를 앞두고 있어 올 겨울 온라인게임 팬들의 기대를 한껏 달구고 있다.

4 | '오세암' 프랑스 안시 애니영화제 그랑프리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장편 경쟁부문 대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의 칸 영화제로 불릴 만큼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며, 지난 2002년에 이성강 감독의 '마리아 이야기'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화작가 고 정채봉씨의 작품 '초승달과 밤배'를 원작으로 한 오세암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누나 감이와 다섯 살 박이 길손이가 엄마를 찾기 위한 여행을 그리고 있는 작품. 2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실제 작품의 무대가 된 설악산 백담사와 관음암의 전경을 디지털 작업을 통해 실사에 가깝도록 살려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상영권 확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객 동원은 10만여명에 그쳤다.

오세암의 제작사 마고21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암은 '헤어 하이', '엘시드', '피노키오 3000' 등과 경쟁을 벌였으며 영화제 기간동안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최고의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로 자리잡았다.

또 특별행사로 열린 한국애니메이션 초청전에서도 한국애니



메이션들을 알리는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오세암은 한편 칸 국제영화제 11세 이하 아동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작품을 관람한 후, 그 반응을 집계해 상을 부여하는 'Junior Jury' 상을 수상한 바 있다.

5 | '파란닷컴' 출범 포털大戰 시작되다



국내 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이 인터넷 포털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재편을 향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화·음악·게임 콘텐츠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춘 CJ까지 가세해 벤처 텃밭인 이 시장에 공룡이 셋이나 등장한 것.

먼저 KT와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경쟁력이 하드웨어인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인 콘텐츠로 옮겨감에 따라 인터넷 포털을 콘텐츠 경쟁의 승부처로 보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590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와 1,800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메가톤급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T의 자회사인 KTH는 기존 한미르와 하이텔, 메가패스닷컴 회원 3,000만명을 흡수해 파란닷컴을 개설했다. KT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인 홈네트워크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라이코스와의 싸이월드(2003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결과 이미 사이트 인기도를 측정하는 주간 페이지뷰 순위에서 다음을 누르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공세에 터줏대감인 NHN·다음·야후·엠패스 등 기존 포털업체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보였다. “특화된 서비스도 없으면서 해볼테면 해봐라”며 이들도 전면전을 준비했다.

6 | DMB위성 '한별' 발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위성 보유국이 됐다.

SK텔레콤은 일본의 MBCo와 공동 소유하는 DMB용 위성인 '한별'을 지난 3월 13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발사했다.

한별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40분 로켓 '아틀라스3A'에 실려 지상 3만5785.6km의 상공으로 쏘아 올려졌다. 지상발사 28분39초만인 이날 오후 3시8분 로켓에서 분리돼 정상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뒤 오후 3시23분 지상 관제소와의 교신까지 순조롭게 끝났다. 한별은 이후 3차례에 걸친 궤도상승을 거쳐 3월 25일께 3만5785.6km의 정지궤도에 진입하면서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 전파를 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의 위성DMB 법인인 TU미디어는 한별이 쏘는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 전파를 이용해 지난 7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미뤄진 상태다.

서영길 SK텔레콤 부사장은 “DMB용 위성 발사로 한국은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시대를 열게 됐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 최고의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스에스로탈사가 제작한 '한별'은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760kg이며 수명은 12년이다.

한편, 위성발사 행사에는 서영길 SK텔레콤 부사장과 배동준 TU미디어랩 상무, 미조구치 데쓰야 일본 MBCo 사장 등 한일 양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7 | 정통부·문광부 ‘콘텐츠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게임, 디지털콘텐츠 업무를 놓고 갈등했던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상호협력기로 하는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지난 10월 1일 오후 3시 정통부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에서 만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문광부는 문화산업, 정통부는 IT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되, 모든 현안을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적극 협력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산하기관 간에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광부가 문화콘텐츠 분야를, 정통부가 디지털콘텐츠기술 분야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업무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고, 내년부터는 공동노력이 필요한 정책현안별 세부협력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분야 기술기획시 문광부의 문화콘텐츠 기술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문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 및 디지털콘텐츠 기술기획에 참여 ▲내년부터 양 부처 공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 게임전시회 추진 ▲2007년 오픈예정인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와 IT콤플렉스는 기능적으로 적극 연계 ▲디지털콘텐츠 유통 등 공동사업 발굴 및 인사교류 추진 등에 합의했다.



정통부 장관 정동채(왼쪽)와 문광부 장관 진대제(오른쪽)가 합의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통부)

8 | 차세대 MP3 ‘PMP’ 시장 두고 격돌



MP3플레이어 시장이 상위권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관도가 굳어, 차세대 MP3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는 휴대용멀티미디어 플레이어(Portable Multimedia Player, PMP)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PMP는 MP3플레이어와 비슷하지만 음악 재생 기능 외에 동영상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에 따라서는 디지털카메라 기능까지 갖춘 것도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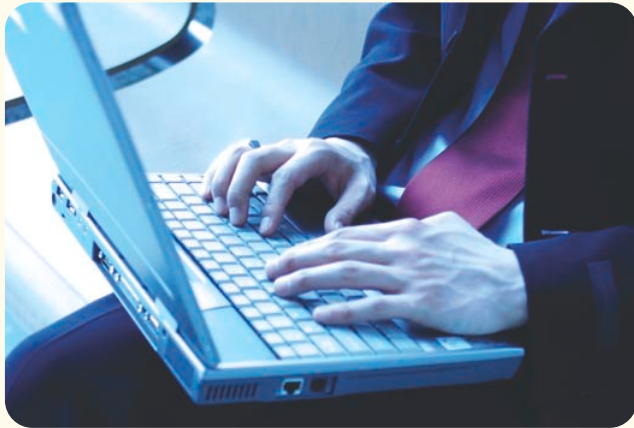
시작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머지않아 기존의 MP3플레이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MP시장의 규모가 거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 MP3플레이어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PMP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레인콤, 디지털큐브, 이레전자산업, 제이스텍 외에도 20여개 중소기업들이 PMP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고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인 벨웨이브도 신규 사업으로 PMP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PMP 판매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는 레인콤과 디지털큐브.

레인콤은 지난 9월말 제품을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두달여 동안 이미 8,000대 가량의 PMP를 판매했다. 그 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2만7,000여대의 PMP를 수출했다. 지난 달 중순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한 디지털큐브도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 4,000대 가량의 PMP를 판매했다.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업체인 아이에스라이프와 277억2,000만원 어치의 대규모 PMP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홍콩에도 1차분으로 1,000대를 공급기로 했다.

9 |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사업자 3개로 확정



달리는 차 속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2.3GHz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사업자가수가 3개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열린 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2월 와이브로 사업자를 3개 선정하는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번 허가정책방안의 최우선 목표를 투자확대를 통한 서비스 조기 활성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또 2개 사업자 선정시 우려되는 통신시장 전반의 쏠림현상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와이브로 및 연관서비스(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의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적인 가상이동망 사업자(MVNO)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개시 3년인 시점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그 전이라도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서면 도입할 방침이다. 반면 3년이 넘어도 가입자가 500만명에 못 미칠 경우에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VNO 제도에서 망을 개방해야 하는 의무는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MVNO로 와이브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해 기존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시장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또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의 최대 가입자 예상치를 945만명, 예상 서비스 가격은 월정액 3만~3만5000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수준을 유지 적용해 상한액은 3,775억원, 하한액은 3,248억원으로 정했다. 허가대상 법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토록 한다. 사업자당 주파수 할당대가는 상기금액을 사업자수로 분할한 규모 1,082억~1,258억원이다.

10 | ITU텔레콤 아시아 2004 부산서 개막

전세계 정보통신업체들의 올림픽인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텔레콤 아시아 2004 대회’가 지난 9월 6일 개최됐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우즈미 요시오 ITU사무총장,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및 각국 IT부처 장관 등 1,5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래를 주도하는 아시아(Asia Leading the Future)’라는 주제로 9월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27개국에서 세계 굴지의 224개 IT업체가 참가했다.

외산기업으로는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로지스, 인텔, IBM, 시스코, 쉘컴, 선마이 크로스시스템즈, 일본의 NTT도코모, NEC, 교세라, 히타치, 도시바, 중국의 ZTE, 차이 나모빌,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이 참여했다.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계열, SK텔레콤, KT, 하나로텔레콤 등이 참가, 첨단 모바일기기, 광대역통합망(BcN),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제품을



시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5개의 첨단기술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고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동명정보대가 자체 부스를 마련해 온라인 게임물과 생체인식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IT관련 기술을 선보였다. 